

한숨 들쭉 땀개친 무안 공무원·군의원 외유 논란

“관광자원 활용 방안 모색” 동시 다발 해외연수 나서 주민들 “양과 농가 속 타는데 ‘혈세여행’까지 해서야”

무안군 공무원과 군의회 의원 및 사무처 직원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해외연수에 나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연수라는 의미는 이해되지만 국가 안보 위기와 영농철을 앞두고 있다는 시점과 막대한 혈세를 들여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19일 무안군과 군의회에 따르면 군은 지난달에 ‘2013년 공직자 해외 문화체험단’ 예산으로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이달부터 해외연수에 나서고 있다. 무안군은 상반기에만 1억6000여만

원을 들여 동남아 코스에 6명, 유럽·미주·남태평양 코스에 9개팀 105명에 대한 해외연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청 직원 12명이 1인당 15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8박9일 일정으로 이스라엘·이집트·요르단을 다녀왔다. 이들은 기독교 문화권 고대역사 관광 문화체험을 통한 국제적 안목 제고 및 문화관광자원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다는 명목을 내세웠지만 혈세가 1800만원 들었다. 오는 22일부터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11명이 갈 예정이며 25일에는

필리핀 대표휴양지인 세부로 6명이 가는 등 상반기에만 유럽·미주·남태평양으로 6팀 82명이 해외연수를 떠난다. 예산 감시에 나서야 할 무안군의회도 올해 외유성 해외연수의 첫 테이프를 끊었다.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4박5일간 의원 7명과 사무국 직원 4명 등 11명은 1인당 209만원(총 2200만원)의 혈세로 대만과 중국 상하이로 다녀왔다. A의원은 “올해 무안갯벌문화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대만과 상하이의

해양관광 자원 견학을 통해 우리군 관광자원 활용방안과 특색있는 볼거리와 먹을거리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간 것이지 절대 외유성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민 박모(54)씨는 “양과가 자연재해와 노균병 등으로 작년 대비 30% 이상이 작황 안 좋아 들쭉 땀개친 한숨이 나는데 의원과 공무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여행을 다녀왔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기자 jun@kwangju.co.kr



목포지역 450여 사업장 고용노동정책설명회

목포고용노동지청

목포고용노동지청은 최근 목포고용센터에서 기업 대표 및 인사노무부서장 등을 대상으로 2013년 고용노동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관내 45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올해 중점 추진사업 소개와 새로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에 대한 안내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근로복지공단목포지사, 한국산업안전공단 목포출장소, 한국장애인고

용공단 전남지사 등 목포지역 고용행정기관 단체들도 참석해 각 기관 해당 사업에 대한 설명도 함께 진행했다. 목포고용노동지청 이재준 지청장은 설명회에서 “올해 주요사업 추진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일하는 사람들과 격차 해소 및 산업재해를 줄이는 예방활동을 철저히 해 근로자 권익 보호 및 근로조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신생아 믿고 맡기세요”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순천 현대여성아동병원 선정

순천 현대여성아동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2013년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의뢰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은 신생아 집중치료실 10병상 확충에 필요한 시설·장비 관련 예산 15억원을 지원 받게 된다. 신생아 집중치료실이란 미숙아와 심장이상 등 선천성 질환을 앓는 고위험 신생아를 집중치료 할 수 있는 신생아용 중환자실이다. 고령 임신부와 다태아 증가 등으로 재태기간 37주 미만의 미숙아, 2.5kg 미만 저체중출생아 출산율이 높아져 신생아 집중치료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매화꽃 예쁘지?

전통 한옥마을인 보성 강골마을에 봄을 알리는 매화꽃이 활짝 피었다. 봄나들이 나선 엄마가 19일 생애 첫 봄을 맞은 딸 아이에게 매화꽃을 보여주며 봄처럼 활짝 웃고 있다. /보성=김종백기자 kyb@kwangju.co.kr

아스파라거스 조기 수확 길 열렸다

도농기원, 땅속 전열선 매립 겨울철에도 생산 가능

전남도농업기술원이 농가의 새로운 틈새 소득작목으로 각광 받는 아스파라거스(asparagus·사진)의 겨울철 수확에 성공, 관심을 끌고 있다. 전남도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는 국내에서 아스파라거스 생산이 어려웠던 2~3월 단경기(斷耕期)에 새순을 생산, 농가소득을 올리는 재배방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아스파라거스는 남유럽이 원산지

로 제주와 남부지방에서 3월 하순부



터 9월까지 수확이 가능하지만 겨울은 농한기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원예연구소는 1월까지 휴면기를 거친 아스파라거스 주변 땅속에 전열선을 매립, 가온(加溫) 작업하는 등 촉진재배를 했다. 땅속 온도가 영상 12~17℃까지 오르면 생산량도 일반(비닐하우스) 생산 때보다 70% 이상 늘었다. 990㎡당 촉진재배는 608kg을 생

“해남으로 봄맞이 오세요”

군, 매화·유채꽃 축제 잇단 개최 관광객 유치 나선

해남군이 주요 관광지 봄맞이 합인 행사를 한다. 매화, 유채꽃 등 봄꽃 축제를 잇달아 열며 관광객을 유혹하고 있다. 단일면적으론 전국 최대 규모(50ha)인 산이면 보해 매실농원에서 ‘따뜻한 봄축제’가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열린다. 축제 기간 광활한 면적에 심어진 홍매, 청매, 백매 등 1만5000여 그루가 일제히 꽃망울을 터트려 장관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천년고향’ 대흥사가 있는 삼산면 두툼산 일대에선 다음달 27일부터 이틀간 ‘따뜻한 유채꽃 축제’를 연다. 해남 관광의 새로운 시대를 열

우수영~제주 간 여객선도 오는 29일 취항한다. 해남군은 축제와 여객선 취항 기념으로 여객선 탑승 관광객과 단체 관광객에겐 공평박물관 등 관광지 입장료 50%를 깎아준다. 두툼산 케이블카 탑승료도 25% 할인한다. 4곳 이상 방문한 관광객이 스탬프 날인 엽서를 제출하면 추첨을 통해 3만원 상당의 해남 특산품을 준다. 박철환 군수는 19일 “화려한 꽃축제와 함께 다양한 합인을 받을 수 있는 해남에서 봄을 만끽하면 기쁘게 두 배”라고 강조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완도 약산 전원마을

택지 100% 분양

완도 약산지구 전원마을 택지가 100% 분양됐다. 19일 완도군에 따르면 분양 신청자는 서울·경기지역 8명, 광주·전남 12명, 전북 7명, 충남 2명, 강원 1명, 경

남 1명 등 도시민이 계약했다. 약산지구 전원마을은 약산면 관산리 일원 3만8750㎡에 전통한옥 31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입주민에게 150㎡의 텃밭도 무상으로 분양한다. 군은 오는 8월 준공을 목표로 택지 조성,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 공사를 하고 있다. /완도=정은기자 서부취재본부장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새로운 패러다임의 거침없는 뉴스쇼

광

박은주
조선일보 문화부장

최희준
TV조선 취재에디터

김미선
TV조선 정치부 기자

월~금 밤 9시 50분 방송

대한민국 어디서나
채널 19번